

신보수주의와 한반도

백창재*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은 미국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1960년대 이래의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과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서 차이가 나는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세계관과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처방은 단극주의(unipolarism), 일방주의(unilateralism), 군사주의(militarism) 및 민주 세계주의(democratic globalism)로 규정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한반도 전략은 동북아 패권 유지, 중국 봉쇄의 지향, 미일 동맹의 강화, 동북아의 긴장 유지라는 대전제 하에 북핵문제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타협 저지, 북한 조기붕괴의 기대, 그리고 동북아의 다자적 해결 저지 등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부시 시대의 신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자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서도 국제 사회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집중조명을 받아 왔다. 이들은 부시 외교 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언론과 싱크 탱크 등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힘 위주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특히 9·11 이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강경 정책들의 배후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되곤 한다.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cjbaik@snu.ac.kr

그러나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며,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에도 각각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며, 신보수주의에 동조하기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신보수주의 운동에 몸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탈냉전과 9·11 이후 시대의 신보수주의 및 신보수주의자들을 1세대 신보수주의와 구분하여 그 특성을 짚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신보수주의가 부활, 확장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신보수주의는 1960년대 미국의 정치적 이념적 지평에서 진보진영의 분열로부터 생겨났다. 이 1세대 신보수주의는 주로 뉴욕의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Commentary』나 『Public Interest』 등의 지성지에 글을 기고하며 특정한 지적, 이념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정치 지향적 지식인 운동이었던 것이다.¹⁾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나 포도레츠(Norman Podhoretz),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모니핸(Daniel Patrick Moynihan), 텍터(Midge Dector), 터커(Robert W. Tucker), 글레이저(Nathan Glazer), 윌슨(James Q. Wilson), 윌답스키(Aaron Wildavsky), 립셋(Seymore Martin Lipset) 등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자들 대부분은 1930, 40년대에는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진보적 이념에서 출발했다가 1960년대 이후 반진보(antiliberalism)의 기치를 걸었다. 뉴딜과 봉쇄에 대한 합의가 1960년대 후반부터 깨지면서, 뉴딜의 가속화와 봉쇄의 재고를 요구했던 진보(급진)세력에 대항하여 이들은 점진적 뉴딜과 봉쇄의 고수를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수」이 되, 「구보수」(Paleo-conservatism)와는 출신과 이념성향이 다른 「신보수」(Neo-conservatism)였던 셈이다.

이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특성 중 다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 위에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스트라우스(Leo Staraus)로부터 니버(Reinhold Niebuhr)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까지,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적(American Exceptionalism) 신

1) 이들의 연계망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흥미로운 회고로 Irving Kristol(1995), Neo-conservatives: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Free Press, pp. 3-40을 참조.

조에서부터 윌슨주의(Wilsonianism)와 현실주의(realis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적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것이다.²⁾ 둘째, 이 지식인 운동의 상대는 1960년대 이후 민주당 내의 정치적 진보세력, 사회적 ‘반문화(counter-culture) 세력’, 그리고 ‘신계급(New Class)’이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보다 진보화되자 이들과 결별하고 이들에 대한 대항을 벌이기 위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셋째, 이 운동의 목적은 미국적 가치와 질서를 내적 위협과 외적 위협으로부터 수호하는 것이었다. 즉, 진보세력이 주창하는 급진적 사회개혁을 막는 한편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양면의 목적이 이들의 세계관의 기반에서 추구되었다.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1980년 선거를 계기로 신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레이건 당선 후 커크 패트릭이나 에이브람스 등 신보수주의자들이 레이건 행정부에 입각하면서 특히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신보수주의자들이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는 지식인 운동에 머물렀다면, 이때부터 정당과 행정부에 참여하여 현실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초임 시기에 대소 강경정책이 지속된 데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제공한 논리와 수사(rhetoric), 그리고 이들이 행사한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제3세계 반공 독재체제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신보수주의자들의 처방대로 이루어졌다. 국내 사회경제정책이 급속히 신자유주의화(보수화)된 것 역시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자유방임적 질서를 반대하고 뉴딜의 기본원리에 찬성하지만 1960년대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보다 시장중심적 질서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레이건 재임 시기에 이르러 신보수주의자들은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악의 제국 소련이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초프에 의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보다 온건화되는 현상이 뚜렷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미국

2) 이에 대해 백창재(2003),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제9권 3호, pp. 83-101을 참조.

과 자유 민주주의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도, 매력도 없게 되었다.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잃게 되었던 된 셈이다.³⁾ 한편, 신보수주의자들의 국내정책적 처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화당 보수 본류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점진적 개혁론의 경우 오히려 구보수주의자들의 의혹을 샀던 것이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에게 대한 '문화의 전쟁(Culture War)'을 기도하는 한편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확장함으로써 발언권을 높이려 했다. 1985년 어빙 크리스톨을 중심으로 『*National Interest*』지를 창간하여, 탈냉전 국제질서의 문제와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후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이 『*Weekly Standard*』를 창간하면서 본격적으로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외교정책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들은 강한 미국을 신봉하면서 미국의 국가이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거듭해 왔다.

신보수주의가 부활하고 오히려 확장된 것은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 외교정책에 몰두했다는 전략적 요인과, 부시(George Bush) 행정부 이래 미국이 외교정책의 중대한 문제와 혼란, 그리고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낳은 결과이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걸프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화당 우파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나아가 1992년 울포비츠(Paul Wolfowitz) 보고서를 기각한 것처럼 탈냉전 미국 외교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다자주의적 성향은 물론 미국의 국익이 걸려있지 않은 불필요하고 무원칙한 개입 행태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층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클린턴에 대한 혐오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은 공화당의 주류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0년 선거 결과 다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인사들 상당수가 부시 외교팀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

3) 이에 대해 포도레츠와 같은 극단적 반공주의자들은 소련의 개혁개방과 약화를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기도 했다(Ehrman, 1995 : 174-177).

시 행정부 초기의 외교정책은 클린턴의 유산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이 강했고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지만, 일방주의적 성향과 미국 국익의 우선, 그리고 힘의 중시란 측면에서 신보수주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실 정책에 대해서도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다시 부활하는 가운데, 9·11과 뒤이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이들의 영향력이 정점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장된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1세대와 달리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사회와 국제질서 양자를 꿰뚫는 일관된 철학적, 사상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들이 전념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미국 외교정책이며, 9·11 이후 이러한 성향은 더욱 굳어졌다. 이들은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비미국적인 것을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그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는다. 요컨대 2세대 신보수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강령과 같은 수준으로 전략할 위험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천 타천의 신보수주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보수주의의 외연적 확장은 이루어졌으나, 정체성의 위기와 내분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1세대와 달리 2세대들 대다수는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에 가담한 전력이 없고, 태생부터 공화당과 보수주의 운동에 속해 왔다. 따라서 스스로를 '신' 보수라고 보기 보다는 공화당 보수 본류의 부분이라고 간주한다(Dorrien, 2004: 14-18). 그리고 진보/자유주의(liberalism)적 시각과 사고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이며 비타협적이다.

둘째,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1세대보다 더욱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이다. 실천적 지식인 운동과 담론의 전쟁(war of words), 관념의 전쟁(war of ideas)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에 대거 가담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이는 아마 1980년 선거와 레이건 초임 행정부 당시의 경험의 영향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직에 진출하는 것 보다는 백악관과 국방부 및 국무부의 고위직을 차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보다 직접적이고 원형 그대로 미국 외교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생긴다. 심지어 신보수주의의 원조이자 2세대 신보수주의의 대표격인 윌리엄 크리스톨의 아버지인 어빙 크리스톨이 "지식인이 외교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할 정도이다(Dorrien, 2004: 179).

셋째, 부시 행정부 초임 시기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은 두 가지 원천에서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이 추진해 온 각종 담론의 전쟁에서의 성공이다. 이들은 『Weekly Standard』를 비롯하여 『National Interest』, 『Public Interest』, 『Commentary』 등과 같은 자신들의 매체뿐 아니라 『Orbis』, 『National review』, 『American Spectator』, 『Journal of Democracy』, 『Wall Street Journal』, Fox TV 등 보수적 매체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PNAC)와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를 비롯하여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JINSA), Hoover Institute, Manhattan Institut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Center for Security Policy(CSP) 등 주요 싱크 탱크들을 통제하거나 우군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보수진영을 후원해 온 각종 재단의 후원금 중 상당수를 이들이 차지할 정도이다. 요컨대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뛰어난 기획력과 대중매체 활용 능력이 이들의 비대칭적 영향력과 확산의 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직접적 영향력은 바로 신보수주의자들 상당수가 부시 외교안보팀의 고위직을 차지하게 된 점에 있다. 1998년 PNAC는 클린턴에게 이라크의 체제 변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에 서명했던 18명 중 11명이 부시 외교안보팀의 요직에 임명되었다.⁴⁾ 이들 대다수는 신보수주의자로 분류된다. 이 밖에 PNAC의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신보수주의에 동조적인 인사들 상당수도 고위직을 차지했다.⁵⁾ 부시 초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신보수주의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많

4) Donald Rumsfeld(국방장관), Paul Wolfowitz(국방 부장관), Richard Armitage(국무 부장관), Elliott Abrams(NSC), John Bolton(국무부 군비통제 차관), Paula Dobrianky(국무 차관), Zalmay Khalilzad(특사 및 이라크 담당 대사), Richard Perle(국방기획위원회 위원장), Peter Rodman(국방 차관보), William Schneider, Jr.(국방과학위원회 위원장), Robert Zoellick(USTR)이 그들이다.

5) 대표적으로 Kenneth Adelman(국방기획위원회), Stephen Cambone(국방부 국장), Eliot Cohen(국방기획위원회), Devon Cross(국방기획위원회), Douglas Feith(국방 차관), I. Lewis Libby(부통령 비서실장), James Wolsey(국방기획위원회), David Wurmser(국무부 참모) 등이다.

은 통로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9·11 이전의 부시가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웠던 점은 이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예산의 증액이나 대중정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신보수주의자들이 바라던 바와는 일정한 거리에 있었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참여한 신보수주의자들에게 항의성 사임을 요구할 정도였다(Kagan and Kristol, 2001: 11-13). 이는 부시 외교안보팀에 신보수주의자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했고, 이들이 보다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통령 체니(Richard Cheney),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Codoleeza Rice), 국무장관 파웰(Colin Powell)이 그들인데, 특히 체니는 신보수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한 후원자였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최소한 9·11 이전에는 외교안보정책의 급격한 신보수주의적 전환을 원하지 않았고,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을 관리 통제할 수 있었다(Dorrien, 2004: 142-150). 요컨대 신보수주의자들이 권력을 획득한 방식 자체, 즉 상하 양원의원과 같이 선거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지 않고 정치적 후원자에 의해 행정부내 요직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이들의 영향력의 원천이자 약점일 수 있다. 궁극적인 결정권은 이들을 임명한 후원자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부시 행정부 시기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을 다룬다. 포도레츠와 같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탈냉전, 9·11 이후 미국 외교정책과 그 담론을 이끌고 있는 것은 2세대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세대 신보수주의의 기수들 중에는 탈냉전 이후 현실주의적 시각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2. 신보수주의적 시각과 처방

역사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 혹은 정책성향들은 다양하다. 특히 탈냉전, 9·11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하게 분류되는 성향들이 중첩·혼재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 외교안

보정책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성향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개입에 대한 전통적인 고립주의-국제주의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고립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크진 않으나 뷰캐넌(Patrick Buchanan)과 같은 공화당 우파, 혹은 리버테리안들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를 호소하고 있다. 이 스펙트럼의 국제주의쪽 연장선에 민주 세계주의자들(democratic globalists)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평화론(theory of democratic peace)의 신봉자이며, 미국의 안보와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독재체제들을 체제 전환(transformation)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역시 힘의 사용의 정도를 둘러싸고 전형적인 자유주의 — 현실주의간 대립이 존재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사용을 자제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1970년대 소련과의 군비축소를 지지했고, 냉전 종식 후에는 peace dividend를 요구하며 국방 예산을 급격히 삭감하려 했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서 군사력을 중시하고, 힘의 과시와 사용을 궁극적 정책수단으로 강조한다. 현실주의 스펙트럼의 끝에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방전쟁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주장한다.

셋째, 탈냉전 국제질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세력균형 현실주의자(balance of power realists) — 단극주의자(unipolarists)의 대립이 존재한다. 키신저(Henry Kissinger)나 월츠와 같이 국제정치학계의 주류는 단극 질서의 안정성을 부정한다. 미국의 단극질서와 단극적 외교정책은 필연적으로 다른 강대국의 균형을 불러 오기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은 힘의 과시와 사용을 자제하는 신중한 세력균형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장선에는 쇠퇴론자들(declinists)도 존재한다. 이들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미 쇠퇴해가고 있거나 조만간 쇠퇴할 것으로 믿는다(Huntington). 따라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 등으로 대표되는 단극주의자들은 현 국제질서는 미국의 힘이 절정에 올라 있는 '단극의 시기(unipolar moment)'이며, 미국의 의도와 수단에 따라 '단극의 시대(unipolar era)'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은 다른 국제 행위자들의 도전을 방지 제거해서 미국 단극질서를 연장하는 것이 된다.

넷째, 미국 외교정책의 접근방식에 따라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일방주의

(unilateralism)의 대립도 존재한다. 다자주의자들은 UN과 같은 국제제도와 국가 간 협조체제의 구축을 중시하며, 국제질서의 관리를 위해 미국의 이익과 주권이 어느 정도 양보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일방주의자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절대시하며,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부분적으로 추구되었던 다자 협조와 국제제도의 효용성을 부정한다. 레이건 행정부와 같이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독자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다.

다섯째, 미국적 질서의 전파와 관련하여 현실주의-월슨주의의 대립도 상정할 수 있다. 월슨주의자들은 미국적 질서와 가치를 절대시하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신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국적 질서가 전지구적 표준이 되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연장선의 끝에 제3세계 독재체제들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요구하는 민주 세계주의자들이 존재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월슨식 사명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며, 그 스펙트럼의 끝에는 이러한 사명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오히려 문명충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명충돌(clash of civilization)론자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동, 대이스라엘정책을 둘러싼 스펙트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친이스라엘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중동지역 불안정의 원인이 아랍과 팔레스타인, 사담 후세인과 같은 아랍 각국들의 독재자들, 그리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단체들에 있다고 보며, 미국은 사론과 같은 이스라엘 강경파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아랍 국가들과 테러단체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는 시오니스트의 존재가 의심되기도 한다. 한편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친이스라엘로 편향되어 중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의수정을 요구하는 인사들도 있다. 나아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유대계의 로비와 음모에 의한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세력도 있다.

신보수주의들간에 개별적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단극주의자이자 민주 세계주의자이고, 군사력에 치중하는 강성/공세적 현실주의자임과 동시에 일방주의자이자 미국예외주의자이다. 나아가 시오니즘의 색채도 부인하기 어렵다.⁶⁾

우선 신보수주의자들이 단극주의자들임은 쉽게 판별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담론의 전쟁에서 ‘단극의 시기’는 1990년 크라우트해머에 의해 선언되었고 (Krauthammer, 1990: 1991) 이는 곧 ‘울포비츠 보고서’로 정책구상에 옮겨졌다. 울포비츠 보고서로 알려진 1992년의 ‘국방 기획 지침(Defense Planning Guide)’은 당시 장관이던 체니의 주문 하에 울포비츠가 책임을 맡았고 그의 참모 칼릴자드가 초안을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단극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 있는 지역적 강대국의 부상을 견제할 것을 제안한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후 여론과 국제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니의 후원 하에 울포비츠의 보좌관 리비가 문구를 수정하여 1993년 초 공개했다.⁷⁾ 이 보고서는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 신보수주의자들 간에는 신조와도 같이 공유되었다. 대표적 신보수주의 논객인 크리스톨과 케이건은 미국은 ‘시혜적 패권(benevolent global hegemony)’이며, 미국 외교정책의 제일의 목표는 “이러한 우위를 유지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의 안보를 강화시키고, 국가이익을 실현하며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선언한다(Kristol and Kagan, 1996: 18-32). 나아가 미국이 지금까지 제국의 역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9·11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된다(Boot, 2001: 27-30; 2002). 이와 같이 단극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을 신보수주의자들은 군사력에서 찾는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야말로 잠재적 경쟁국들과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2000

6) 헬퍼와 클라크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으로 i) 세계가 선과 악간의 선택으로 규정되고 전자가 후자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덕성이라는 종교적 확신에 기반한 신념; ii) 국가간 관계의 근본적 경정소가 군사력 및 이의 사용 의지라는 주장; iii)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린 최우선 지역으로 중동 및 이슬람권에 초점을 두는 사고를 들고 있다. 또, 이들의 행태적 특성으로 iv) 국제적 이슈를 절대적 도덕의 흑백논리로 분석하고 자신들만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며; v) 미국의 단극적 힘에 초점을 두면서 군사력의 사용을 최후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예방적 군사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vi) 국무부와 같은 전통적 외교 기구를 경멸하며, 비군사적 다자기구에 적대적이고 국제협약과 조약을 경시하며; vii) 레이건 행정부를 그 전형으로 평가하며 레이건의 유산을 승계하려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Halper and Clarke, 2004: 11-12). 이들의 지적 역시 필자의 진단과 대부분 일치한다.

7) 이 과정에 대해서는 James Mann(2004), *Rise of the Vulcans: The History of Bush's War Cabinet*, Viking, pp. 208-215를 참조.

년 대선을 앞두고 PNAC는 군비에 관한 제안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i) ABM 파기; ii) 전세계적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iii) 현역 복무 병력수를 140만에서 160만으로 증강; iv) 우주 공간에 대한 전략적 지배권 구축; v) 국방예산을 연간 200억 달러씩 증가시켜 GDP 대비 3.8%에 이를 것; vi) 남유럽,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 새로운 병력의 영구 주둔; vii) 병력 투사의 신속성 증대와 과학기술 활용; viii) 동시다발적 전쟁 수행능력 개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2000). 2000년 선거로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ABM을 파기하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신보수주의자들을 만족시켰지만, 국방예산에 있어서는 클린턴의 정책을 이어받음으로써 신보수주의자들을 낙담시켰다. 캠페인 당시의 약속과 신보수주의자들의 대거 임명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라는 신보수주의의 핵심 강령을 부인했던 것이다. 이는 9·11로 인해 반전되었다. 2003년 국방예산은 48억 달러나 증액되었고, 이후 이라크 전비를 포함하여 천문학적으로 증액되었던 것이다. 상황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레이건 이래 신보수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수준의 군비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은 군사력 사용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들은 외교와 비군사적 해결을 경시하며, 근본적 해결은 군사력의 사용과 그 의지에 있다고 믿는다. 군사력의 과시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와 협상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보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강화와 과시, 그리고 이를 주저 없이 사용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국방부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아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행정부 외부의 신보수주의자들 대부분은 럼스펠드와 울포비츠를 후원한다. 반면, 파웰은 럼스펠드/울포비츠 팀을 견제하고 있는 적으로까지 간주되며, 라이스 역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가져온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의 후계자로 온건한 현실주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해 왔다(Mann, 2004: 179-197).

한편, 9·11 이후 수립된 '부시 독트린(*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02)'의 선제공격론(preemption)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예방전쟁적(prevention)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시 행정부를 이라크전쟁으로 이끌는데도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9·11이 일

어나기도 전 클린턴 행정부 후반에 이미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바 있다.⁸⁾ 테러 직후 울포비츠는 테러리즘의 후원국을 “끝장내겠다”고 천명했으며, PNAC는 부시에 대한 공개 서한에서 알 카에다에 대한 언급은 단 두 문장에 그친 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강조했다(Dorrien, 2004: 153). 테러에 대한 대응을 군사력을 동원한 국가간 전쟁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테러 직후부터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전쟁의 확대를 주장하며, 이란,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북한 등 공격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테러의 예방과 중동 지역의 안정이라는 미국 국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Dorrien, 2004: 243).

셋째, 힘을 신봉하는 단극주의자이므로 신보수주의자들은 일방주의적이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국제 제도와 협력은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 장애가 된다고 인식한다. 일방주의적으로 국가 이익을 내세울 수 있어야 국가이익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어긋나는 한 집단안보와 동맹의 중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들은 부시가 취임 초 교토 기후협약을 거부한 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드디어 클린턴식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수호하는 ‘일방주의자 대통령(unipolar president)’이 레이건 이후 최초로 집권했음을 축하했다(Krauthammer, 2001a). 이라크 문제의 UN을 통한 해결도 전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난했고, 그 창구였던 파월을 강력히 비판하곤 했다.

이러한 성향의 기저에는 미국 예외주의의 신조가 자리 잡고 있다.⁹⁾ 세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선의 구현으로서 미국은 악과의 투쟁이라는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우선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위대함을 신봉하고 미국적 질서와 가치가 전세계적 표준이라고 자부한다. 1980년대 이래의 경제적 쇠퇴론자들을 경멸하며 헌팅턴과 같은 문화적 쇠퇴론자들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패

8) 이 서한에는 린스펠드, 울포비츠, 펄, 크리스톨, 케이건, 볼튼,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베넷(William Bennett) 등 PNAC 소속 18명이 서명했는데, 이 중 11명이 부시 행정부에 기용되었다.

9) 이에 대해 백창재,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제9권 1호 참조.

권국이며, 미국 문화와 미국적 가치도 전 인류가 소망하는 바라고 인식한다.

비미국적인 것, 더욱이 미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존재는 악이며 변환과 타도의 대상이고 이들과의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다. 19세기까지의 구대륙, 월슨 시기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 이차대전 당시의 독일과 일본, 냉전기의 소련이 악의 제국들이었듯이, 탈냉전 시대 미국 단극 질서에 도전과 위협을 가져오는 존재들은 악이며 타락한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로 9·11 이전 신보수주의자들은 중국에 주목했었다. 천안문 사태가 드러냈듯이 중국은 자유가 억압된 사회주의 국가이며, 이러한 중국이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PNTR 부여에 반대했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수호하고 동아시아의 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PNAC, 2000).

그러나 9·11 이후 신보수주의자들의 초점은 당연히 ‘불량국가’에 집중되었다. 특히 부시가 2002년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한 이라크, 이란, 북한은 ‘독재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terrorism, terror, WMD)’를 함께 하면서 미국 단극질서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악의 적이자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군사력의 사용을 통해 “끝장내야” 하는 불량국가로 판정된 것이다.

이라크전을 준비해 가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대다수는 민주 세계주의로 더욱 경도되었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위협은 근본적으로 제3세계의 불량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독재 체제들을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는 제3세계의 많은 비민주국가들에 미국이 모두 개입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입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슬람 국가들과 북한의 예에서 보듯이, 현존하는 위협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이다. 미국의 군사적 능력으로는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룰 수 없음이 명백하며,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동시다발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군비지출을 크게 늘리도록 요구한다. 셋째, 이라크전과 이후의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군사력을 통해 불량국가들의 독재정권을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이 국가들이 민주화될 수 있느냐는 숙제가 남는다.

이 문제들은 해결이 쉽지 않으며, 신보수주의적 사고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 신보수주의로 분류되던 인사들 간에 균열을 가져오기도 했다. 크리스톨과 케이건과 같은 전형적인 민주 세계주의자들은 전세계적 개입을 기대한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중동 지역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은 물론 북한도 이들의 정권교체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주저한다. 반면, 크라우트헤머와 같은 민주 현실주의(democratic realism)자들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strategic necessity)을 개입의 기준으로 내세운다(Krauthammer, 2004: 15-25).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거나 독재 체제들 중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하는 국가들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보수주의의적 사고에서 미국 예외주의와 월슨식 이상주의는 후퇴하고 냉정한 현실주의와 단극주의만이 남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독재정권의 붕괴 이후 체제 전환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크리스톨과 케이건 등 민주 세계주의자들은 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믿으며, 특히 이라크의 경우 미국의 더 많은 병력이 장기 주둔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에서 이슬람의 국교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라크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나 심지어 럼스펠드, 울포비츠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반면, 후세인 축출 후 이라크 사태의 악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은 체제 전환의 가능성 자체에 회의적이 되고 있다. 문화와 전통, 종교가 다른 문명권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될 수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Fukuyama, 2004: 57-68). 이에 대해 전형적 민주 세계주의자들은 이차대전 직후 독일과 일본의 예를 내세운다. 문화와 전통과 종교가 전혀 다른 일본에도 미군정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되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보수주의와 시오니즘과의 연관성 및 영향에 대한 점도 신보수주의의 시각과 처방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울포비츠와 펄, 크라우트헤머, 크리스톨, 케이건, 부트, 어빙 크리스톨, 포도레츠, 와텐버그(Ben Wattenberg), 무라칙(Joshua Muravchik), 카플란(Robert Kaplan) 등 대표적 신보수주의자들은 유대계이다. 또한 체니, 볼튼, 펄, 울시, 커크패트릭(Jean

Kirkpatrick), 파이스(Douglas Feith) 등은 강경 시오니스트 조직인 JINSA의 자문 위원들이며, 또 다른 강경 시오니즘 단체인 CSP에도 신보수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시오니스트들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공화당내 구보수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해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다(Dorrien, 2004: 195-198).

신보수주의자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아랍권 국가들에 초강경 정책을 주문해 왔다는 점도 이들과 시오니즘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음모론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대표적 신보수주의자들은 유태계이기 때문이든 혹은 지정학적 판단 때문이든, 중동지역과 이슬람권에 전념해 왔으며, 9·11 이후에는 더욱 이 지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3. 신보수주의와 한반도

지금까지 살펴본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의 시각과 처방, 그리고 이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과 균열의 연장선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대 한반도 구상이 전개된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은 미국과 미국적 질서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모아져 있다.

우선 신보수주의자들의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인식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eekly Standard』나 『American Spectator』등 신보수주의 계열의 저널에는 김정일을 조롱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실린다(Dealey, 2000: 54-55). 이들은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스탈린주의 국가이며 김정일은 국민들의 생존과 자유를 빼앗고 있는 독재자라고 본다. 부시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다시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정일이 북한 국민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한 그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자,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했다. 9·11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아서 이제 부시야말로 미국의 역사적 사명을 지닌 지도자가 되었으며 체니 보다도 믿음직스럽다는 것이다(Kagan and Kristol, 2002: 11).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신보수주의자들의 평가이다. 한편으로는, 제네바 미북합의를 위반하며 핵개발을 계속했던 것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북한은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존재이며, 다른 한편, 납치문제를 시인함으로써 북일 수교를 무산시킨 데서 보듯이 김정일 정권은 문제 해결과 위기대응 능력도 결여한 비합리적 독재정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Eberstadt and Ferguson, 2004: 22-30).

이러한 정권이 핵무장할 경우 그 위험은 명백하다. 우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고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북한이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에 핵무기를 밀수출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신보수주의자들은 주장한다.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은 악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북핵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이 전 세계의 악과 독재자들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을 넘는 독재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선을 넘어선 것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라는 것이다 (Rosett, 2003: 41-42).

그렇다면 이같이 증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신보수주의자들은 일찍부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처리과정을 비판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 봉쇄와 유화 사이를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Eberstadt, 2000: 307-336).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은 클린턴 방식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과 김정일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Waldron, 2004: 27-31).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 무라치크(Joshua Muravchik)의 주장을 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사고에서 선택지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무라치크는 북핵문제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해법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데, 그의 결론은 전쟁이다(Muravchik, 2003: 33-38). 그의 논지에 따르면,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선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이다. UN의 제재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역시 이미 북한은 가장 고립된 국가라서 별 효과가 없고, UN이 제재를 취할지도 의문이다. 또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만 고집하는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중국의 협력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크라우트해머가 주장하듯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개발을 막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나아가 오설리반(John O'Sullivan)의 제안처럼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신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북한이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해결책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철저한 불신의 전제 위에서 월슨주의와 일방주의, 단극주의, 그리고 힘의 사용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테러 이후 북핵문제를 본다면, 해답은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크리스톨과 케이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2003년 초 크리스톨과 케이건은 미국은 세계의 안보를 위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이라크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이를 확산시키는 북한은 악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처리를 이라크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이들은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곧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동시 전쟁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오히려 온건화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두 전쟁을 동시에 벌이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실제 그럴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동시에 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비증강이 필수적이라는 이들의 지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군사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북한과의 즉각적인 전쟁을 이들은 요구했다. 핵폭탄 한 두 개가 있는 것과 이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전력 투사의 위험은 있지만 악의 축의 3분의 1이 핵 강국이 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Kagan and Kristol, 2003: 9-10).

바그다드가 함락된 직후에도 크리스톨은 이미 다음 전쟁을 요구했다. 다음 대상은 이란과 북한에 대한 동시 공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이란의 시아파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교란시키지 못하면 그들도

붕괴되리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며,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란 정권을 변환시키지 못하면 이라크에서의 승리도 무산될 것이다. 이 묘한 논리에 따라 이라크의 운명은 이란과 뿔 수 없게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된다. 따라서 이라크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쟁도 임박해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의 향후 상황 전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크리스톨은 주장한다. “우리는 보다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 라는 것이다(Kristol, 2003: 9).

이와 같이 전형적인 신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가장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전후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변화가 생긴 듯하다. 우선 이라크에 몰두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었다. 시오니즘의 영향 여부를 떠나 이들 대다수는 원래 중동문제를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2년 국정연설 당시 부시가 악의 축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목하자 크라우트해머는 실제 공격대상은 이라크와 이란이고 북한은 비이슬람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고 추측했던 바 있다(Krauthammer, 2001b).

다른 한편,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보다 약해지고 은밀해진 듯 하다. 북한에 대한 공격을 직접 주장하지는 않고,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거나(Waldron, 2004: 27-31), 김정일 정권의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Eberstadt and Ferguson, 2004: 22-30). 또는 UN의 제재를 주장하기도 한다(Dealey, 2000: 54-55). 전쟁의 요구가 정권교체의 요구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까운 장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확신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과 탈북 난민 유도 등의 적극적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보수주의자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권붕괴과정에서 전쟁과 난민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을 이들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요구하는 강도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며,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굴복하여 보상을 해주는 나쁜 선례가 되어 비확산 체제의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현실주의에 경도된 시각에서는 동아시아의 보다 큰 밑그림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기도 한다. 예컨대 크라우트해머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중국의 압박이라고 본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는 일본의 핵무장이며, 미국이 일본의 핵 무장을 지원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현실주의적인 단극주의자들 중에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남북한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Waldron, 2004: 27-31). 북한은 결국 핵을 지니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제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으며,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억지(deterrence)의 대상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핵을 지닌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면 보다 강한 전력을 갖춘 통일한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후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같은 신보수주의자들의 대북한 강경론은 미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이들의 주장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이라크에 묶여 있는 미국으로서는 두 전쟁을 수행할 군사적 능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선택지가 되기 힘들다. 더욱이 병력의 감축과 기동력의 증진을 추구하려는 부시 행정부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병력을 대폭 증가시킬 가능성도 적다. 부시 재임 행정부 내에서는 체니나 린스펠드 같은 공화당 보수의 현실주의자들이 행정부 안팎에 포진한 신보수주의자들을 견제할 가능성도 높다(Dorrien, 2004: 242). 이들을 후원했고 이라크전까지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이들의 관점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확전 주장과 ‘영원한’ 전쟁 주장은 무모한 것이고 정치적 자살에 가까울 것이다. 부시 행정부 내에 신보수주의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국방부를 신보수주의자들로 채운 것이 체니와 린스펠드였다. 역으로 이들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지닌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신보수주의자들은 미 북간의 원만한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장애가 될 능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담론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신보수주의 논객들과 행

정부 내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려 들 것이다. 이들에게는 제네바 핵 합의와 클린턴의 대북정책 실패라는 좋은 무기가 있다. 따라서 백악관의 결단이나 6자회담의 극적인 전개가 없는 한, 미 북간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력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는 없어도 생존의 여건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붕괴되기를 신보수주의자들은 기다릴 것이다.

참고문헌

- 백창재(2003),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제9권 3호, pp. 83-101.
- _____(2003),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제9권 1호, pp. 111-134.
- Ansell, Amy E., eds. (2001), *Unraveling the Right: The New Conservatism in American Thought and Politics*, Westview Press.
- Boot, Max (2001), “The Case for American Empire”, *Weekly Standard* 7 (Oct. 15), pp. 27-30.
- _____(2002), *The Savage Wars of Peace: The Forgotten History of America’s Small Wars*, Basic Books.
- Dealey, Sam (2000), “North Korea’s Dear Leader”, *American Spectator*, Vol. 33. Iss. 10 (Dec), pp 54-55.
- Devigne, Robert (1944), *Recasting Conservatism: Oakeshott, Strauss, and the Response to Post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 Dorrien, Gary (2004), *Imperial Designs: Neoconservatism and the New Pax Americana*, Routledge.
- Eberstadt, Nicholas (2000), “North Korea: Beyond Appeasement”, in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Policy*, Encounter Books, pp. 307-336.
- Eberstadt, Nicholas, and Joseph P. Ferguson(2004), “The North Korean Nightmare”, *Weekly Standard*, Vol. 9, Issue 47 (April 30), pp. 22-30.
- Ehrman, John (1995), *The Rise of Neoconservatism: Intellectuals and Foreign Affairs, 1945-1994*, Yale University Press.
- Fidler, Stephen and Gerard Baker (2003), “America’s Democratic Imperialists”, *Financial Times*, March 5.
- Fromkin, David (1995), *In the Name of Americans: FDR, Truman, Eisenhower, Marshall, MacArthur – The Generation That Changed America’s Role in the World*, Alfred Knopf.
- Fukuyama, Francis(2004),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pp.57-68.
- Gerson, Mark, “Introduction”, in Gerson,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
- Halper, Stefan and Jonathan Clarke (2004), *America Alone: The Neo-Conservatives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gan, Robert, and William Kristol (2003), “North Korea Goes South”, *Weekly Standard*, 8 (January 20), pp. 9-10.

- Kagan, Robert, and William Kristol (2002), "The Bush Doctrine Unfolds", *Weekly Standard*, 7 (March 4).
- Kagan, Robert, and William Kristol (2001), "No Defense", *Weekly Standard*, July 23, pp. 11-13.
- Kirkpatrick, Jeane (1979), "Dictatorships and Double Standards", *Commentary*, Nov.
- Krauthammer, Charles (1990/1991),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 _____ (2001a), "The Bush Doctrine: In American Foreign Policy, A New Motto: Don't Ask Tell", *Time* (March 5), 42.
- _____ (2001b), "Redefining the War", *Washington Post* (Feb. 1), A25.
- _____ (2004),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The National Interest* (Fall), pp. 15-25.
- Kristol, Irving (1995), *Neoconservatives: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Free Press.
- Kristol, William (2003), "The End of the Beginning", *Weekly Standard*, 8 (May 12).
- Kristol, William, and Robert Kagan (1996), "Toward a Neo-Reaganit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75 (July), pp. 18-32.
- Malone David M. and Yuen Foong Khong, eds. (2003), *Unilateralism and U. 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Lynne Rienner.
- Mann, James (2004), *Rise of the Vulcans: The History of Bush's War Cabinet*, Viking.
- Muravchik, Joshua (2003), "Facing Up to North Korea", *Commentary*, Vol. 115, Iss. 3(Mar), pp. 33-38.
- Nash, George H. (1996),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Since 1945*, 2nd ed.,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2000), *Rebuilding America's Defense: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PNAC.
- Rosett, Claudia (2003), "A Line Is Drawn", *American Spectator*, Vol. 36, iss. 3(Jun/Jul), pp. 41-42.
- Steinfels, Peter (1979), *The Neoconservatives: The Men Who Are Changing America's Politics*, Simon & Schuster.
- Waldron, Arthur (2004), "Our Game with North Korea", *Commentary*, Vol. 117, iss. 2 (Feb), pp. 27-31.
- Wilson, James Q. (1996), "Foreward", in Mark Gerson, ed., *The Essential Neoconservative Reader*, Addison-Wesley.

Neo-conservatism and Korean Peninsula

Baik, Chang-Jae*

Neo-conservatives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se are “the second-generation Neo-conservatives”, who are different from the first-generation of the 1960’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and ideological nature. Their view of the world and prescriptions for American foreign policy can be defined as unipolarism, unilateralism, militarism, and democratic globalism.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e Neo-conservatives’ strategy is to oppose any compromise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encourage the sudden collapse of its regime, and to obstruct multilateral resolutions in Northeast Asia.

* Professor of Poli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jbaik@snu.ac.kr

